

400만 백수시대 ... 상아탑은 취업전쟁 중

- ① 다다익선 자격증 '닥치는대로'
- ② 그룹스터디 세개 이상은 필수
- ③ 스펙 쌓기 주말에도 봉사활동

‘한자검정시험 준비, 스테디그룹 공부, 영어, 해외 연수비 마련 위한 아르바이트, 주말엔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 이기려면 남과 다른 것으로 무장해야 한다. 취업시즌을 맞은 광주·전남지역 대학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밤낮 구분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나만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업준비생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하루하루의 일정이 가히 살인적이지만 ‘취업’이라는 목표 아래 불평은 찾아볼 수도 없다. 방학중인 졸업예정자나 3학년 등 재학생들의 취업준비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수년째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공부나 ‘직업’이 돼버린 지 오래다.

◇“튀어야 이긴다”=MOS나 OA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자격증은 물론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이제 내밀 수도 없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점 요인이다.

제2외국어 공인인증시험, 한자 인증시험, 한국어인증시험, 국사 공인시험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자격증마저도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적어 넣기 위한 쟁취의 대상이다. 이중 한국어인증시험 등과 같은 경우는 인증 기간이 2년이래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고역(?)을 겪어야 한다.

A대학 생물학과 이모(26)씨는 자연계지만 다른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차별화하기 위해 국사공인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스터디’ 세 개는 필수=혼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는 독학 형태의 취업준비는 사라졌다. 영어 스터디, 논술 스터디, 상식 스터디 등 3개는 기본.

최근에는 특정 기업의 모집공고가 발표되면 시험 준비기간 동안 5~6명 정도가 팀이 돼 준비하는 ‘스팟(spot) 스터디’가 유행이다. 한 달여 남짓한 기간에 경쟁자들보다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서류, 필기, 면접 등 다양한 스터디를 진행한다.

B대학 전자과 김모(25)씨는 오전 7시 토익 단어 스터디부터 시작한다. 김씨는 “혼자서 하면 지치기 쉽지만 스터디는 지각·결석에 따른 벌금·퇴출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꼬박꼬박 나가게 된다”면서 “학기중에 스터디를 2개 했지만 방학이라 3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력·시간 아끼려 봉사활동도 덜 고된 곳에 몰려=공기업을 주목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봉사활동확인증이나 헌혈증서가 운전면허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단 1분이 아까운 취업시즌에는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봉사가 선호된다.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은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거나 청소 등 비교적 체력 소모가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을 찾아 다닌다.

◇수개월 아르바이트로 해외어학연수=좀처럼 늘지 않는 영어 탓에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어학연수를 한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이들은 수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해외어학연수를 가거나 간신히 항공료만을 마련해 해외에서 일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대학 영문과 정모(26)씨는 “취업대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하루하루 1분이 아깝다”면서 “인턴교과를 하며 매달 90만원씩 저금하고 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호주나 미국으로 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와 각종 체험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위암·대장암 등 수술비 병원따라 500만원 차이

사립대학병원 최고가

위암환자와 대장암환자가 같은 절제 수술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수술비가 최대 50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등 대형병원 간 주요 암수술 진료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비는 대부분 사립대학병원이 최고가였으며, 국립대학병원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주요 암 13개를 포함한 38종의 질병의 병원별 수술비, 입원일수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위암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36곳 등 총 의료기관 62곳 중 위암 환자 대상 위전체절제수술 진료비가 최대 526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위절제술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곳은 마산삼성병원(996만9천원)으로 진료비가 가장 낮은 경북대병원(470만9천원) 보다 526만원이 많았다.

대장암 수술의 경우 한양대 구리병

원이 903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전남대병원(440만원)으로 무려 463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자궁경부암도 수술비가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652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전남대병원(247만원)에 비해 무려 410만원이나 비쌌다.

이 밖에 유방암과 간암도 수술비 최고·최저의 격차가 각각 295만원, 153만원이나 벌어졌다.

각 수술에 대한 개별 병원의 진료비와 입원일수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질환자들은 자신의 진료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같은 정보는 종합전문병원·종합병원·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별로만 제공돼왔다. 종합전문병원이란 의원(동네병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갈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주로 대학병원을 일컫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카드 고객정보 대량 유출 ... 부정사용 피해 속출

최근 신용카드 회원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부정 사용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카드 결제와 판매내역, 재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포스(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이 해킹당해 수천 건의 고객정보가 줄줄 새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업체의 시스템이 뚫려 고객 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12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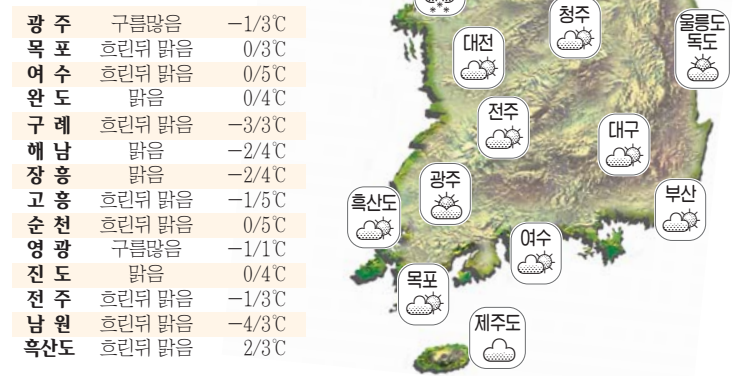
터 올해 초까지 P사와 C사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POS 시스템이 해킹당해 대량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커들이 고객 정보를 통해 복제카드를 만들어 주로 해외에서 460여건, 1억9천만 원 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작년 8~9월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외 해커가 H사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술집에서 결제된 카드 사용 내역 2천360건을 POS 단말기에서 빼가는 사고가 있었다.

/연영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7분
해질 17시 53분 달돋이 12시 34분
달질 02시 28분

항해선박 '조심조심'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다.



항해선박	종항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5/5	-2/7	2/7	-2/6	-3/5	-4/5

내일까지 '반짝 추위'

최저 영하 3도 ... 강풍에 체감온도 '뚝'

25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다. 또 25일 낮부터 26일까지는 '반짝 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낄 것”이라고 24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일시적으로 기

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뚝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서 2.0~4.0m로 높게 일겠고, 남해서부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다의 물결도 거세게 일고 돌풍까지 예상돼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역	11월 25일 ~ 12월 1일	국립대학병원	사립/수도	해외/일본	해외/미국
광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전남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11월 25일 ~ 12월 1일

포스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채용예정자 교육생 모집

모집대상 : 포스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참여기업(포스코그룹 계열사) 직원

모집인원 : 90명

모집기간 : 2010. 1. 25 ~ 2. 10. (교육기간: 2010. 3. 1 ~ 3. 31)

교육장소 : 포스코 인력개발원(광주, 창원, 울산)

교육내용 : 교육비 무료, 휴학수당 및 출석 제공

모집분야

- 1. 1차 교육: 2010. 3. 1 ~ 3. 31 (교육기간: 2010. 3. 1 ~ 3. 31)
- 2. 2차 교육: 2010. 4. 1 ~ 4. 30 (교육기간: 2010. 4. 1 ~ 4. 30)
- 3. 3차 교육: 2010. 5. 1 ~ 5. 31 (교육기간: 2010. 5. 1 ~ 5. 31)

1차 교육생 선발 → 2차 교육생 선발 → 3차 교육생 선발 → 입사

포스코 인력개발원